

【논문】

# 행위에 대한 이해

규범성과 행위자의 관점

김재권\*

【주제분류】 행위 이론

【주요어】 행위, 행위 설명, 합리적 설명, 주관성, 규범성, 일인칭적 관점, 실천적 추론

【요약문】 행위에 관한 논의에서 우리는 행위자의 “주관적” 관점과 외적, “객관적” 관점을 구분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된다. 이 구분은 흔히 결정과 행위에 대한 규범적 관점과 비규범적 관점의 구분과 평행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 논문은 이 구분들이 서로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또한 이 구분들이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행위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문제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고찰한다. 특히 행위의 규범성을 그것의 주관적 특성과 연결 짓는 시도를 할 것이고, 또 어떤 의미에서 규범적 관점이 본질적으로 일인칭적인지를 설명하고자 할 것이다. 이러한 고찰은 왜 행위에 대한 이해 역시 본질적으로 일인칭적이며, 객관적이고 비인칭적인 기술로 환원될 수 없는지를 드러낼 것이다. 이 고찰의 한 가지 흥미로운 부산물은 왜 행위자가 그와 공통된 합리성의 규범을 공유하는 행위자의 행위만을 이해할 수 있는지 — “합리적 이해 가능성의 순환”이라 불릴 수 있는 것 — 에 대한 설명이다.

---

\* 브라운 대학 철학과

## I

행위(agency)와 행위 설명(action explanation)에 관한 철학적 논의에서 행위자의 관점을 중요한 것으로 언급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된다. 예를 들어, 도널드 데이빗슨(Donald Davidson)은 그의 영향력 있는 논문 “Actions, Reasons, and Causes”의 첫 페이지에서부터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이유가 행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는, 그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행위자가 그의 행위에서 보았거나 보았다고 생각한 어떤 것을 보도록 해야 한다 — 즉, 행위자가 원했다든지, 욕구했다든지, 높이 평가했다든지, 소중히 여겼다든지, 도리에 맞는 것으로 여겼다든지, 이로운 것으로 여겼다든지, 의무적인 것으로 여겼다든지, 마음에 드는 것으로 여겼다든지 하는, 행위의 특성이나 결과, 측면을 보도록 해야 한다.!)

데이빗슨은 왜 행위자가 그가 한 행위를 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행위자의 관점을 취하여 그가 “보았던” 것들을 “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 같다. 행위자의 관점은 일차적이고 중심적이며, 우리가 행위자의 행위를 합리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관점의 내용에 도달해야 한다.

일인칭적 관점을 진지하게 다룬 또 한 명의 철학자로 우리는 토마스 네이글(Thomas Nagel)을 들 수 있다. 그는 그의 책 *The View from Nowhere*에서 행위자의 “내적(internal)” 관점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

1) Donald Davidson, “Actions, Reasons, and Causes,” in *Essays on Actions and Event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70). 인용문은 p. 3에 나온 것이며, 강조는 첨가된 것이다. 이 논문이 처음 출간된 것은 1963년이다.

내적으로는, 우리가 행위할 때 대안적인 가능성들이 우리 앞에 열려있는 것 같다. 가령, 오른쪽으로 돌지 왼쪽으로 돌지, 이 요리를 주문할지 저 요리를 주문할지, 이 후보에 투표할지 저 후보에 투표할지 — 그리고 이 가능성들 중 하나가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현실화된다.)

그러나 삼인칭적, “외적(outer)” 관점 역시 존재하는데, 네이글은 이에 대해 이렇게 쓰고 있다.

… 내적 관점으로부터 볼 때 열려 있는 것 같은 많은 대안들이, 우리가 외적 관점을 취할 수 있다 해도, 이 외적 관점으로부터는 닫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그 대안들 중 몇몇이 열려 있다 하더라도, 행위자의 조건이나 행위의 환경이 완전하게 명시되면, 어떻게 행위자가 결과에 기여할 그 이상의 어떤 것 — 행위자가 단순히 그 결과가 일어나는 장소로서가 아니라 그 결과의 원천으로서 기여할 수 있는 것 — 이 남아 있을 수 있는지가 분명치 않다. 행위자에 관한 모든 것이 주어졌는데도 그 대안들이 열려있다면, 행위자가 그 결과와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네이글은 외적(external), 삼인칭적 관점으로부터는 행위와 행위자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광경을 바라보는 순수한 방관자(spectator)에게는 단지 팔다리가 이쪽 저쪽으로 움직이는 것과 같은 사건만이 있을 뿐, 행위자나 행위는 없다.

행위에 관한 의도적 설명(intentional explanations), 즉 행위자의 이유에 의한 행위의 설명에 대해 네이글이 다음과 같이 말한다는 것 역시 흥미롭다.

자유로운 행위는 선행하는 조건에 의해 결정되어서는 안 되며, 오직 의도적(intentionally)으로만, 즉 정당화하는(justifying) 이유와 목적에 의해서만 완전히 설명되어야 한다.)

2) *The View from Nowher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6), p. 113.

3) *The View from Nowhere*, pp. 113-4.

4) *The View from Nowhere*, p. 115. 강조는 첨가된 것이다.

이 인용문에서 흥미로운 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이다. 즉 네이글의 입장에 따르면, 행위는 오직 “정당화하는 이유와 목적”에 의해서만 설명 — “완전하게” 설명 — 된다는 것이다. 어떤 행위를 정당화하는 규범적 이유가 그 행위를 또한 설명한다. 정당화하는 이유는 행위—우리의 행위든 다른 사람의 행위든 — 에 대한 우리의 이해의 토대가 되고, 그 행위를 합리적으로 이해가능하게 한다. 이것이 바로 내가 이 논문의 뒷부분에서 발전시키고 이해시키고자 하는 행위 설명에 대한 접근이다.

행위 이론(action theory), 규범 윤리학(normative ethics), 도덕 심리학(moral psychology) 분야에서 이들 및 다른 철학자들의 저술을 보면 다음과 같은 대립되는 관점들의 세 가지 쌍들이 자주, 어떤 경우에는 아주 두드러지게, 언급되곤 한다.

행위자의 관점 vs. 방관자(spectator)의 관점  
일인칭적(주관적, 내적) 관점 vs. 삼인칭적(객관적, 외적) 관점  
규범적(평가적) 관점 vs. 비규범적(기술적, 이론적) 관점

이러한 구분들을 짓는 대부분의 철학자들에 따르면, 이러한 관점들 중 어떤 하나를 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내가 이 논문에서 하기 원하는 한 가지는 이러한 세 가지 이분법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더욱 명확히 하는 것이다. 별다른 논의 없이 흔히 가정되기로는, 행위자의 관점은 일인칭적 관점이고, 규범성은 일인칭적 관점을 요구하며, 행위에 관한 합리적/의도적 설명은 오직 일인칭적 관점 안에서만 진행될 수 있다고 한다. 이 모든 주장들이 참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주장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들이 (만약 참이라면) 왜 참인지를 아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 될 것이다. 행위자의 관점이 반드시 규범적이라면, 그리고 그의 결정이나 행위를 이해함에 있어서 행위자의 관점을 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규범성이 행위자나 행위를 이해하는, 또는 이해해야 하는 방식과 중요한 연관을 갖는다고 기대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우리는 규

범성이 행위에 대한 이해와 정확히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에 대해 알기 원한다.

20세기 중반 과학철학자들이 몰두했던 철학적 문제들 중 하나는 과학적 설명의 본성에 관한 문제였고, 역사에서의 설명의 지위에 관한 논쟁은 설명에 관한 논쟁에서 작지만 중요한 부분이었다. 한 쪽에 칼 험펠(Carl Hempel), 어니스트 네이글(Ernest Nagel)과 같은 경험주의적/자연주의적 철학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역사적 설명이 단지 과학에서의 법칙에 기반한 설명 — 즉 자연 과학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설명 — 의 한 종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반대 쪽에는 윌리엄 드레이(William Dray), 에이 아이 멜든(A.I. Melden), 피터 윈치(Peter Winch)와 같은 철학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각각 약간씩 다른 이유로 다음과 같이 논변했다. 즉 역사적 이해에는 어떤 특수하고 독특한 것이 있고, 이로 인해 역사에서의 설명은 자연 현상에 관한 설명과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이다. 돌이켜 보면, 이러한 논쟁은 산업 혁명이나 서양 식민주의의 도래와 영향과 같은 큰 규모의 역사적 사건들의 설명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시저가 왜 기원전 49년에 루비콘강을 건너기로 결정했는지, 또는 루이 14세가 왜 1688년에 네덜란드로부터 군사적 압력을 철회하는 실수를 저질렀는지를 설명하는 것과 같은 개개의 역사적 행위자의 행위의 설명에 관한 것이었다.<sup>5)</sup> 이것은 실질적으로 두 진영 사이의 논쟁을 인간 행위의 설명의 본성에 관한 논쟁 — 즉 왜 행위자가 그러한 행위를 하는가를 이해하는 데에 어떠한 양상의 설명이 적용되어야만 하는가 — 으로 만들었다. 관련된 행위자가 시저나 루이 14세와 같은 중요한 역사적 인물인지, 혹은 나와 당신과 같은 평범한 사람인지는 이 논쟁에 어떠한 차이도 만들지 않는다. 어떤 경우든, 험펠은 과학적 설명에 관한 그의 유명한 연역-법칙적(D-N) 모델을 인간 행위로 일반화하는 것을

---

5) 이 예는 드레이가 그의 *Laws and Explanation in History*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57), p. 122에서 역사학자인 트리블리안(G.M. Trevelyan)으로부터 가져온 예이다.

시도했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인간 행위를 이해하는 것은 인간 행동에 관한 관찰된 법칙과 규칙성에 호소하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일이다. 험펠은 행위자의 이유에 의한 행위의 설명이 갖는 비판적/평가적인 측면을 인지하기는 하지만, 이것이 행위의 이해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단호하게 부인한다.<sup>6)</sup> 이 만만찮은 상대에 정면으로 반대하여, 드레이는 행위자와 행위의 규범적 평가가 우리의 행위의 이해 방식에 중심적인 것이 되는 행위 설명 모델을 발전시킨다.

나는 여기서 험펠과 드레이 사이의 논쟁을 반복하거나 평가하지는 않을 것이다. 특히 나는 험펠 자신의 접근법에 대해서는 그다지 많이 이야기하지 않겠다. 나의 생각으로는, 이 분야의 논쟁에 미친 드레이의 공헌이 과거 몇 십 년 동안 부당하게 경시되어 왔다고 본다. 나는 이렇게 된 한 가지 이유가 이 기간 동안 데이빗슨의 행위에 관한 인과 이론(causal theory of action)이 우세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이 글 서두에서 인용한 데이빗슨의 인용문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과 이론은 험펠의 모델과 많은 중대한 특성들을 공유하는, 합리적 행위에 대한 철저하게 삼인칭적이고 객관적인 설명이다. 여하튼 나의 현재 목적상, 행위 설명에 관한 드레이의 규범적, 행위자 중심의 모델에 대해 재고하는 것으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편리할 것이다.

## II

드레이는 이유에 기반한 행위의 설명을 “합리적 설명(rational

---

6) 험펠은 드레이의 규범적 모델에 대해 논평하면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드레이가 합리적 설명에 본질적이라고 생각하는 평가적 기능이 설명적 중요성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것에 의해서도 보여진다...”. *Aspects of Scientific Explanation* (New York: The Free Press, 1965), p. 471.

explanations)”이라고 부른다(우리는 이를 “합리화(rationalizations)”라고도 부를 것이다). 그가 의미하는 바는, 이러한 설명은 행위에 대한 행위자의 “근거(rationale)”를 드러냄으로써 설명한다는 것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그러한 설명의 목적은 단순히 행위가 그러한 경우에, 아마도 어떤 법칙들(느슨한 법칙이건 아니건 간에)에 따라, 일어나는 행위라는 것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이유들로 인해 행해졌어야 할 것(the thing to have done)이었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다. “행해졌어야 할 것(thing to have done)”이라는 구절은 행위자의 계산에 의한 설명이 가진 결정적으로 중요한 특성 — 지금까지 우리가 주목했던 것과는 매우 다른 특성 — 을 드러낸다. 왜냐하면 여기서 부정사 “-할 (to do)”은 가치 용어로서 기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이러한 설명은 행위에 대한 평가(appraisal)의 요소를 가진다는 것이다. 즉 우리가 그 행위에 대한 설명을 요청할 때 우리가 알기 원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 행위가 적절했나(appropriate)는 것이다. 일상적인 상황에서 설명에 대한 요구는 동시에 행위자로 하여금 그러한 행위에 대한 정당화나 변명을 제시하도록 하는 도전으로 흔히 인식된다.<sup>7)</sup>

드레이는 합리화의 규범적 모델을 명시적이고 전적으로 지지한다. 행위자의 이유나 계산을 행위와 연결시키는 어떤 법칙 같은 것이 존재하여, 이에 따라 험펠 식의 D-N 논변이 만들어질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드레이의 입장에 따르면, 이는 왜 행위자가 그러한 행위를 했는지를 설명하거나 이해가능하게 만드는 작업과는 완전히 무관할 것이다. 설명적 역할을 하는 것은 행해진 그 일이 그 상황에서 할 마땅한(right) 일이었다는 사실이다. 험펠을 따라 우리는 드레이의 모델을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sup>8)</sup>

7) William Dray, *Laws and Explanation in History*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57), p. 124.

8) Hempel, *Aspects of Scientific Explanation*, p. 470.

도식 D. 행위자 A는 유형 C의 상황에 처해있다.  
 유형 C의 상황에서 해야 할 적절한 일은 X이다.  
 이것이 A가 X를 한 이유이다.

이런 종류의 설명 모델에 대하여 제기되어온 몇 가지 반론들을 살펴보면 논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자. 첫째로 험펠의 반론은 예측될 만한 것이다. 그의 주된 비판은 다음과 같다. 도식 D의 설명항은 “왜 A가 X를 했는지를 설명할 수 없다. 왜냐하면 [앞서 험펠이 제시한] 설명적 유관성의 요구조건에 따르면, 주어진 사건이 왜 일어났는가는 질문에 대한 적절한 대답은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해야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즉 그 정보가 참으로 받아들여질 때, 그 정보는 그 사건이 일어났다고 믿는 것에 대한 좋은 근거들을 줄 수 있는 정보여야만 한다.”<sup>9)</sup> 그러나 우리가 주어진 상황에서 종종 적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위에 제시된 설명항이 함축하는 바는 X는 A가 할 합리적인 행위였을 것이라는 것뿐이다.

나는 험펠의 반론에 대해 한가지만을 지적하고자 한다. D-N 논변을 제공하는 것이 사건을 설명하는 한 가지 방법일 수는 있다. 그러나 험펠은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보여야만 한다. 행위자가 그 행위를 왜 했는지에 대한 이해를 돕는 다른 방법들이 있을지도 모른다. 드레이에 따르면, 행위자가 행한 행위가 해야 할 적절한 일이었다는 것을 아는 것이 그 행위를 이해하도록 만든다. 나의 현재 과제는 어떻게 이것이 사실일 수 있는지를 보고자 하는 것이다. 즉 어떻게 한 행위를 “적절하게” 만드는 이유, 즉 정당화하는 이유(justificatory reasons)가 설명적 이유(explanatory reasons), 즉 그 행위를 이해 가능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왜 그 행위자가 그러한 행위를 했는지를 알게 하는 이유가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설명에 대한 다음과 같은 취지의 한 가지 입장이 있다. 즉 어떤 현상에 대한 설명은 왜 다른 가능한 현상이 아닌 바로 그 현상이 발

---

9) Hempel, *Aspects of Scientific Explanation*, pp. 470-1.



생했는지를 보여야만 한다는 것이다(“왜 그 광자(photon)가 틸 B가 아니라 틸 A를 통과했는가?”). 이것이 이유에 의한 행위 설명에 적용될 때, 이는 다음과 같은 요구조건에 해당한다. 즉 이유는 그것이 행위를 설명할 때 왜 행위자가 그에게 열린 대안적인 행위들 Y나 Z나, W 등등 중 하나가 아니고 X를 하기로 선택했는지를 보여주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네이글은 이 요구조건을 사용하여 합리화가 진정한 설명이 될 수 없다고 논변한다. 행위자의 내적 관점으로부터 두 가지 이유들, R과 R\*, 즉 행위 X를 지지하는 이유 R과 행위 Y를 지지하는 이유 R\*가 있다고 해보자. 심사숙고 후에 행위자는 X를 하기로 결정한다. 왜 행위자가 X를 선택했는지 설명하라고 요청하면, 그 행위자는 이유 R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말할 것이다. 네이글은 이러한 설명이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설명으로서 실패한다고 논변한다. 즉, 그 행위자가 X 대신 Y를 선택했었다라면, 그는 그 선택을 이유 R\* 때문에 Y를 했다고 똑같이 잘 설명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행위자가 처한 결정 상황이 주어지면, 이것은 불가피하다. R과 R\* 모두 그것들이 각각 지지하는 행위를 필연적으로 발생시키지 않는다. 행위를 한다는 것은 바로 행위자가 이러한 비결정적인 상황에서 선택을 하는 데에 있다. 네이글은 합리화가 “행위를 주관적으로 이해가능하게(subjectively intelligible) 할 수는 있지만, 똑같이 가능하고 대등하게 이해가능한 다른 행위가 아닌 왜 이 행위가 행해졌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는다”고 말한다.<sup>10)</sup> 네이글의 주장이 맞다면 규범적 이유는, 적어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행위를 설명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른다.<sup>11)</sup>

다음으로 “데이빗슨의 도전(Davidson’s challenge)”이 있는데, 이는 험펠 및 네이글의 반론들과 관련된 것처럼 보인다. 널리 알려진 것처럼, 데이빗슨은 “행위를 지지하는 이유(reason for)”와 “행위를 유발하는 이유(reason for which)”를 구분한 것으로 유명하다. 행위 설명

10) *The View from Nowhere*, p. 116.

11) 네이글의 마지막 인용문에서 주장된 바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에 관한 그의 인과 이론(causal theory of action explanation)이 초기에 널리 받아들여지고 또한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은 주로 다음과 같은 그의 논변에 기인한다. 즉 단순히 행위를 지지하는 이유(reasons “for” an action)가 아니라 행위를 유발하는 이유(reasons “for which” an action was done)만이 행위를 설명할 수 있고, 이러한 구분은 오직 인과적 견지에서만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행위를 유발하는 이유는 그 행위의 원인이 된 이유이다. 반면 행위를 지지하는 이유는 그 행위를 초래하거나 그 행위에 인과적인 공헌을 하는데에 실패할 수 있으며, 그런 경우 그 이유는 어떠한 설명적 역할도 하지 못한다. 당신은 길을 건너는 한 가지 이유를 가졌고, 이는 당신이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사기 원했기 때문이라고 해보자. 그러나 실제로 당신이 길을 건너 것은 어떤 노인이 보도에서 비틀거리다 넘어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커피에 대한 욕구가 아니라 그 사람을 돕고자 하는 당신의 욕구가 당신이 길을 건너 원인이고, 또한 그 행위의 설명이다. 두 가지 욕구들 모두가 그 행위에 대한 이유들이지만, 그 중 오직 하나의 이유만이 그 행위를 설명한다. 이러한 입장이 맞는다면 — 많은 행위 이론가들이 이러한 입장을 설득력 있는 것으로 여긴다 — 이유의 규범성은 설명의 그림에서 빠지게 되는 것 같다. 오히려 설명적 이유를 설명적으로 무기력한 이유로부터 구별해주는 것은 이유의 인과적 효용성이다.

드레이 식의 규범적 모델에 동조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논변들을 피해나가야 한다. 선행하는 상황이 주어질 때 왜 그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 또는 일어날 수 있었던 다른 대안적 현상들 중 하나가 아니라 왜 그 현상이 일어났는지 보여주기들을 요구하는 설명이나 이해의 방식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러한 종류의 설명이 발생한 일을 해명하고 문제의 현상에 관련된 상황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돕는 유일한 방법일 필요는 없다. 오히려 규범적 접근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주장에 대한 그럴듯하고 적극적인 논변을 구성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즉 행위자가 선택을 할 때 그가 처한

상황의 규범적인 차원들을 아는 것이 발생한 일 — 즉 어떻게 그 선택이 이루어졌는지, 왜 행위자가 그러한 행위를 했는지 — 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중요한, 아마도 결정적인, 공헌을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데이빗슨이나 네이글 또는 험펠 식의 요구들이 충족되지 않을 때조차도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 III

이러한 논변을 발전시키는 작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는 규범적 모델의 한 특수한 측면을 부각시키는 물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미 살펴보았듯이, 드레이에 따르면 합리적 설명의 핵심은 그 행위자 주어진 상황에서 해야 할 “적절한(appropriate)” 행위라는 것을 보여 주는데 있다. 이는 즉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불러일으킨다. 누구의 견지에서 “적절한가”? 즉 행위의 적절성이 행위자의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설명자의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하는가?<sup>12)</sup> 이러한 질문은 행위 설명에 관한 모든 규범적 모델들 — 규범적 모델들에 따르면 모든 합리적 설명은 행위의 정당성, 적절성에 대한 비판적/평가적 판단을 포함해야 한다 — 에 대해 발생하는 일반적인 문제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 문제는 드레이에게 한정된 문제가 아니다.

도식 D로 돌아가 보자. 설명을 구성하는 각 문장을 진술하는 것은 행위자가 아니라 설명자이다. 특히 그 전제들은 설명자가 내리는 판단들이며, “유형 C의 상황에서 할 적절한 행위는 X이다”라고 단언하는 사람은 설명자 — 즉 행위자 및 그의 행위를 관찰하는 방관자 —

---

12) 우리는 여기에 “아니면 신의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하는가”라고 추가해야 한다. 즉, 이는 적절성에 대한 판단이 “객관적으로” 옳은 것이어야 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된 약간의 언급을 아래에서 하겠지만, 논의를 단순하게 하기 위해 이 논점은 제쳐놓기로 하겠다.

이다. 다시 말해, 다른 사람의 행위를 합리화하는데 있어서 설명자, 즉 제삼자인 방관자가 행해진 그 일이 행위자가 할 적절한 일이었다는 것을 판단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행위에 대한 나의 합리적 이해에 들어오는 것은 적절성에 대한 나의 판단이다. 도식 D가 주어지면 이러한 결론은 불가피한 것 같다. 그러나 이런 결론이 맞는 것일 수 없다 — 적어도 이것이 이야기의 전부일 수 없다. 왜냐하면 이러한 해석에서, 왜 드레이의 모델에 부합하는 합리적 설명이 행위자의 이유 — 그가 지각한 것, 그의 목표, 무엇이 옳고 그른지, 그리고 무엇이 작동하고 그렇지 않은지 등등에 대한 그의 판단 — 에 의한 행위 설명인지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우리가 다음과 같은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더욱 분명해진다. 즉 행위자가 그 자신이 유형 C의 상황에 처해있다는 것을 알지조차 못한다거나, 또는 그러한 상황에서 무엇이 적절하고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그의 판단이 우리의 판단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우리의 행위자가 그의 어린 아들이 놀다가 집에 늦게 돌아왔기 때문에 아이에게 저녁밥을 주지 않고 그냥 자라고 명령한다고 해보자. 그는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한 벌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우리는 그의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 아이를 적당히 야단치는 것이면 충분하고도 남는다고 생각한다. 이런 경우에 우리는 그의 행위를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으로부터 막혀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우리, 즉 설명자가 도식 D의 두 번째 전제로 사용해야 할 문장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할 적절한 일은 그 아이를 꾸짖는 것이다”이고, 이 문장은 왜 행위자가 그의 아들에게 저녁밥을 주지 않고 자게 했는지를 설명하는 일에 틀림없이 부적절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대단히 이상한 결과이다. 결국, 합리적 설명의 전체 요점은 행위자가 한 행위를 우리의 동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그의 이유에 근거하여, 혹은 드레이가 말하듯이, 그의 “근거(rationale)”에 의해서 이해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 아닌가? 그의 근거를 우리의 근거로 대체시킴으로써 어떻게 우리가 그의 행위를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는가?

드레이는 종종 행위자의 “계산(calculations)”에 대해서 얘기하곤 한다. 또한 설명자가 그 계산을 보거나 재구성하는 것 — 즉 상황이 행위자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또한 그것에 기반하여 행위자가 어떻게 추론하고 숙고하는지를 설명자가 보는 것 — 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자주 말한다. 이런 모든 얘기들, 즉 행위자와 “감정이입적으로 동일시(empathetically identifying)”한다든지, 자신을 행위자가 지각한 상황으로 “상상적으로 투사(imaginatively projecting)”한다든지, 행위자의 계산을 “재현(re-living)”하고 “재연(re-enacting)”한다든지, 행위자의 희망, 두려움, 욕구를 “재경험(re-experiencing)”<sup>13)</sup> 한다든지에 대한 모든 얘기들은 행위자의 관점이 일차적이고 주어진 것이며, 설명자의 해석은 그것이 행위자의 관점을 바르게 포착해야 한다는 점에서 파생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시사한다. 이는 설명적 역할을 하는 적절성에 대한 판단이 설명자의 판단이 아니라 행위자의 판단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강화한다.

조금만 생각해봐도 이런 견해 역시 옳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행위의 적절성이 행위자에 의해서 판단되는 것이라면, 이는 합리적 설명의 규범성을 제거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도식 D에서 중대한 두 번째 전제, “유형 C의 상황에서 할 적절한 행위는 X이다”를 행위자가 믿고 판단한 것의 기술적 삼인칭적인 보고로 바꾸어 놓을 것이기 때문이다. 즉, 두 번째 전제는 결과적으로 “행위자는 유형 C의 상황에서 할 적절한 행위가 X라고 판단한다”가 될 것이다. 이것은 도식 D로부터 그것의 규범성을 빼앗아가 버린다(두 번째 전제는 이 도식에서 유일한 규범적 진술임을 주목하라). 드레이와 규범적 모델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문제의 그 행위가 주어진 상황에서 적절한지 아닌지에 대한 설명자의 판단은 제거될 수 없는 것이다. 합리적 설명에서 설명자가 행위자의 선택과 결정을 (드레이의 용어로) “평가(appraisal)”한다는 것은 드레이의 입장의 핵심이다. 합리화는 설명자에 의해서 수행되는 규범적/평가적인 활동이다.

13) 인용된 모든 용어들은 드레이가 사용한 용어들이다.

이상의 고찰은 우리에게 단 한 가지의 대안만을 남겨놓는다. 즉, 합리화가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행위자와 설명자가 각각 행위의 적절성에 관하여 그들 자신의 판단을 하고, 이 판단들, 즉 행위자의 판단과 설명자의 판단은 서로 일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천적 합리성과 행위의 적절성에 대한 객관적으로 타당한 기준이 있어서 행위자와 설명자 모두가 그것에 맞게 판단해야 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도식 D에서 두 번째 전제는 이런 종류의 해석을 시사하는 것 같다. 그러나 다른 가능성도 있다. 이는 합리성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있건 없건 간에, 합리화가 성공적이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은 행위자와 설명자가 실천적 합리성에 대해 대체적으로 동일한 기준을 공유하고, 관련된 특정 행위의 적절성에 관하여 일치된 의견을 갖는다는 것이다.<sup>14)</sup> 내가 생각하기에 이는 중요한 결과이다. 우리는 이를 “합리적 이해가능성의 순환(the circle of rational intelligibility)”이라 부를 수 있다. 왜냐하면 이는 실천적 합리성에 대하여 우리와 공통된 규범들을 공유하는 행위자들만의 행위를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함축하기 때문이다. 만약 합리성의 대안적 체계가 있다면, 우리는 그러한 체계를 고수하는 사람의 행위를 합리화하거나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이는 드레이가 “우리와 유사한 존재의 행위”의 설명에 대해 말하는 것에 문자적 의미를 부여한다.<sup>15)</sup> 우리는 이제

14) 이는 명백히 행위자와 설명자가 대체로 동일한 사실적 믿음 — 특히 행위가 행해지는 상황에 대한 믿음 — 을 공유할 것을 요구한다.

15) *Laws and Explanation in History*, p. 118. 나의 생각에, 이 결론이 데이빗슨의 잘 알려진 입론, 즉 우리는 우리와 대부분의 믿음을 공유하는 화자/인식자만을 “근본적으로 해석(radically interpret)할 수 있고, 해석 가능한 화자의 믿음의 대부분은 참이어야 한다는 입론과 닮은 점이 있다는 것은 흥미로운 점이다. 이 주장은 우리가 이미 언급한 가능성, 즉 행위자와 설명자가 공유해야 하는 합리성에 대한 객관적으로 타당한 기준이 있을 가능성에 해당한다. 잘 알려졌듯이, 데이빗슨은 그의 결과들을 이용하여, 상호 번역 불가능하고 해석 불가능한 언어와 믿음은 있을 수 없다고 논변한다. 데이빗슨의 *Inquiries into Truth and Interpret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에 실린 논문들을 보라. 명제 태도 귀속에 대한 모사 이론(simulation

“어떠한 점에서 우리와 유사한가?”라는 물음에 대해 한 가지 답을 가지고 있다. 그들이 실천적 합리성에 대한 기준을 우리와 공유한다는 점에서 우리와 유사하다는 것이다. 이는 약간은 기대치 못한 결과이다. 그러나 이런 결과에 놀라서는 안된다. 우리가 “감정이입적 동일화”, “상상적 투사”, “재연”, 그리고 “재경험”과 같은 말들을 생생한 은유 이상의 것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이른바 “합리적 이해가능성의 순환”은 기대될만한 것이다. 이런 류의 견해는 사회 (또는 “인간”) 과학이 방법론의 어떤 근본적인 측면에 있어서 자연 과학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주장과 일관적이며, 실제로 그러한 주장을 지지하는 것 같다. 그 차이는 자연과학과는 달리 사회과학에서는 연구자(“설명자”)가 연구 대상자(“행위자”)와 같은 생명체라는 사실로부터 발생한다. 우리가 살펴본 것은 이러한 기본적인 차이가 어떻게 합리적 행위자의 행위의 설명과 이해에 대한 방법론을 형성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것이다. 결국, 정신과학(Geisteswissenschaften)과 자연과학(Naturwissenschaften)의 두 그룹의 과학 분야들 사이에 근본적이고 화해 불가능한 방법론적인 차이가 있다는, 유럽에서 1세기 이상 전에 유행했고 많이 논의되었던 견해를 지지하는 근거가 있는 것 같다.<sup>16)</sup>

## IV

헴펠의 D-N모델과 같은 설명의 “모델”이 제시될 때 우리가 물어야 하는 본질적인 질문이 있다.<sup>17)</sup> 이 질문은 설명적 관계(explanatory

---

theory)은 연구자(즉, 명제 태도를 귀속하는 자)가 그 연구의 대상자와 매우 유사하다는 사실을 이용하는 또 다른 접근법이다.

16) 이 이슈에 관한 19세기의 논쟁에 대한 유용한 개관을 보려면, G.H. von Wright, *Explanation and Understanding*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71), 1장을 보라.

17) 나는 다음 논문에서 이 문제를 자세히 논의한다. “Explanatory Knowledge

relation)의 본성에 대한 것이다. 즉 설명항에 포함된 정보의 어떤 점이 설명될 사실이나 현상을 설명하도록 만드는가? 다시 말해, 설명항에 의해서 제공된다고 생각되는 설명적 통찰(explanatory insight), 이해가능성(intelligibility)의 원천은 무엇인가?

예를 드는 것이 내가 염두에 두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보다 분명히 할 것이다. 우리 대부분은, 우리가 왜 p인가를 설명할 때 흔히 p에 의해 표상된 사실이나 사건의 원인을 들어서 설명한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인과적 설명의 경우 설명항에 의해 주어진 정보는 인과적 정보이고, 인과 관계가 설명적 관계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설명항은 피설명항의 원인이 됨으로써 피설명항을 설명한다. 인과 관계는 설명적 이해의 원천이다. 그리고 적절한 인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 주어진 설명을 “올바른” 또는 “참인” 설명으로 만든다. 어떤 철학자들이 주장했듯이,<sup>18)</sup> 개별적 사건에 대한 설명이 항상 인과적 설명이라면, 인과 관계는 개별적 사건들과 현상들에 대한 모든 설명들에 대해서 단일한 설명적 관계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데이빗슨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가 사건을 설명하는 하나의 방법은 그 사건을 그것의 원인의 맥락 안에 놓는 것이다. 원인과 결과는, 우리가 어떤 것만큼이나 잘 이해하는 “설명”이란 말의 의미에서, 결과를 설명하는 패턴을 형성한다.<sup>19)</sup>

여기서 그가 말하는 것을 우리의 용어로 표현한다면 다음과 같다. 즉 인과 관계를 설명적 관계로 보는 것은 문제나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것이다.<sup>20)</sup>

---

and Metaphysical Dependence”, *Philosophical Issues* 5 (1994): 51-69.

18) 예를 들면, David Lewis, “Causal Explanation”, in *Philosophical Paper II* (New York an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6).

19) “Actions, Reasons, and Causes”, p. 10.

20) 설명과 관련하여 인과를 생각할 때, 우리는 인과에 대해 여러 가지 다른 견해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데이빗슨이 인용문에



“Actions, Reasons, and Causes”에서, 데이빗슨은 행위를 설명하는 것이 그것을 정당화하는 것과 어떻게 서로 연관되어있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러한 해석 하에서, 이유가 하는 정당화의 역할은 그것의 설명적 역할에 의존하지만,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내가 당신이 나의 발을 밟았다고 믿지 않는 한, 당신이 나의 발을 밟은 것은 내가 당신의 발을 밟은 것을 설명하지도 정당화하지도 않는다. 하지만 그 믿음은 단독으로, 그 믿음이 참이건 거짓이건 간에, 나의 행위를 설명한다.<sup>21)</sup>

정확히 왜 데이빗슨이 이유의 정당화하는 역할이 그것의 설명적 역할로부터 파생되거나 그에 의존한다고 생각하는지 분명치 않다. 이 맥락에서 그가 의존(dependence)에 의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분명치 않다. 어떤 방향으로 의존 관계가 성립하든, 그리고 “의존”이 무엇을 의미하든 간에, 이유의 설명적 역할과 정당화하는 역할 사이에 중요하고 흥미로운 관계가 있다는 것은 널리 받아들여지는 생각이다. 데이빗슨과는 달리 규범적 모델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그 관계를 반대로 본다. 즉 이유의 정당화하는 역할이 일차적이고 근본적이며, 이유의 설명적 효용성은 그 이유의 정당화하는 역할로부터 나온다는 것이다. 이유가 설명하는 것은 그것이 정당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규범적 모델에서는 정당화의 관계가 합리화의 토대가 되는 설명적 관계이다.

그러므로 규범적 이론가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대한 작업은 행위를 정당화하는 행위자의 이유를 알게 되는 것으로부터 어떻게 이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다. 왜, 그리고 어떻게 행위의 “근거(rationale)”를 아는 것, 즉, 그 행위가 적절한 것이었다는 것

---

서 말하는 바는, 직관적인 의미에서의 인과로 이해될 때는 그럴듯할 수 있지만, 인과가 “엄밀(strict)” 법칙을 요구한다는 데이빗슨의 견해를 염두에 둔다면, 반드시 그럴듯한 것은 아니다.

21) “Actions, Reasons, and Causes”, p. 8.

을 아는 것이 그 행위를 설명하고 해명하며, 그 행위에 대한 이해를 돕는가? 나는 아래에서 행위에 대한 일인칭적 고찰에 기반한 한가지 설명 — 곧 보게 되듯이, 개략적이고 프로그램의 성격을 갖는 설명 — 을 제시할 것이다. 첫째로 내가 논변하려고 하는 것은, 행위자가 실천적 숙고(practical deliberation)에서 취하는 규범적 관점은 본질적으로 일인칭적이라는 것이다. 행위자가 취하는 규범적 관점은 그가 숙고하고 실천적 추론(practical inference)을 수행할 때 취하는 관점이다. 나는 실천적 추론에 연루된 관점은 본질적으로 일인칭적이라는 것을 논변할 것이다. 행위에 대해서 행위자가 갖는 이유의 원천은 그의 (실제의 또는 재구성될 수 있는) 실천적 추론에 있다. 이는 행위자가 자신의 이유들을 파악하는 것 또한 본질적으로 일인칭적인 것으로 만든다. 다음으로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행위자가 행위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자신의 행위를 이해해야 하며, 이러한 종류의 자기-이해(self-understanding)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자신의 이유를 그 자신이 파악(grasp)하는데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의 자기-이해는 행위의 가능성 자체에 근본적이고 필수적인 것이다 — 어쨌거나 이것이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이다. 나의 설명에 있어서, 이유에 의해 행위를 자기-이해하는 것은 기본적인 출발점이다. 나의 설명의 마지막 부분은 이러한 방식의 이해를 일인칭적 관점의 투사를 통하여 제삼자에게 적용하는 것을 포함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한 사람의 내적 관점을 다른 사람의 상황으로 감정이입적 또는 상상적으로 투사하는 것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것은 행위자가 그가 가진 이유로 인해 수행한 행위를 삼인칭적으로 기술하는 것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결정 상황에 있는 행위자의 관점에는 본질적으로 일인칭적인 어떤 것이 있다는 주장에서부터 시작하도록 하자. 내가 말했듯이, 행위자의 관점은 규범적이고 또한 일인칭적이라고 흔히 가정되곤 한다. 행위자의 관점이 규범적이라는 것은 명백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행위의 선택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행위자의 질문은 “내가 무엇

을 해야 하는가(ought)?” “무엇이 할 마땅한 일인가(the right thing to do)?” “X를 하는 것이 적절한가?” 등등이다. 행위자의 관심은 규범적이며, 그가 결론으로 원하는 것은 그의 행위를 지도/평가하는 규범적인 판단이다. 그러나 규범적 관점이 또한 본질적으로 일인칭적이기도 하다는 것은 그렇게 분명치 않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만 묻는 것이 아니라, “그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가 처한 상황에서 그가 할 마땅한 일은 무엇인가?” 등등의 질문 역시 물을 수 있고, 또 자주 묻곤 한다. 아마도 규범적 질문들은 일인칭적인 경우 보다는 삼인칭적인 경우가 더 많은 것 같다. 그렇다면 무엇이 행위자의 규범적 관점을 본질적으로 일인칭적 관점으로 만드는가?

비유로서 데카르트의 코기토 논변을 고려해 보자. 이런 물음을 물어 보자: 데카르트가 모든 가능한 의심을 넘어서 확립했다고 생각했던 명제(proposition)는 무엇인가? 이 명제를 표현하는 문장(sentence)을 우리가 생각해 낼 수 있는가? “데카르트가 존재한다”라는 문장은 안 된다. 이 문장이 표현하는 명제, 즉 데카르트가 존재한다는 명제는 그가 절대적 확실성을 가지고 증명할 수 있었을 만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데카르트가 그는 존재한다고 증명했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그가 존재한다”는 문장은 어떠한가? 이 문장도 역시 안 된다. 이 문장은 독자적으로는 어떤 특정한 명제도 표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코기토 명제가 말로 표현할 수 없다거나 혹은 우리가 그것을 포착(grasp)할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니다. 우리가 데카르트가 그는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말함으로써, 우리는 그 명제를 표현했고 그가 증명했다고 생각했던 것이 무엇인지 충분히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명제와 관련하여 할 수 없는 것이 있다. S가 이 명제를 표현하는 문장이라면, 데카르트를 제외한 어느 누구도 다음과 같은 형식의 명제 태도들(propositional attitudes)을 형성할 수 없다: 나는 S를 안다, 믿는다, 단언한다, 의심한다, 궁금해한다, 등등. 데카르트는 “나는 존재한다”라고 발언함으로써 이 명제를 단언할 수 있다. 내가 “나는 존재한다”라고 발언한다면, 나는 데카르트가 존재한다는 명제

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즉 김재권이 존재한다는 명제를 표현할 것이다. S를 발언함으로써 내가 데카르트의 “존재(sum)” 명제를 주장할 수 있는 어떠한 문장 S도 존재하지 않는다. 다음은 데카르트의 코기토 논변이다:

- ( $\alpha$ )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 논변을 그에 대해서, 삼인칭으로는 진행시킬 수 없다.

- ( $\beta$ ) 데카르트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데카르트는 존재한다.

이 삼인칭 버전은 데카르트의 목적에 맞지 않을 것이다. 이 추론이 타당하더라도 이 추론은 데카르트의 존재를 의심의 여지 없이 확립하는 데에 어떠한 도움도 주지 못한다. 반면 데카르트에 의해서 진행되는 ( $\alpha$ )는 데카르트의 존재를 의심의 여지 없이 확립한다고 논변될 수 있다. 오직 데카르트만이 그의 코기토 논변을 진행시킬 수 있으며, 다른 어떤 누구도 데카르트에 대해서 이 논변을 진행시킬 수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코기토 논변은 ( $\beta$ )와는 달리 본질적으로 일인칭적이다. 즉 이 논변은 오직 내적, 주관적인 관점에서만 진행될 수 있다.

이와 비슷한 일이 실천적 추론(practical inference), 즉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결론에 도달하게 하는 추론에서도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실천적 추론을 보자.<sup>22)</sup>

- ( $\gamma$ ) 나는 오늘 쇼핑하러 가야 한다 (ought).

---

22) 이것은 브라운 대학에서 열린 존 브룸(John Broome)의 실천적 추론에 대한 강연에서 가져 온 것이다. 이 강연은 블랙웰(Blackwell)에서 *Practical Reasoning*이라는 책으로 출간 예정이다.

따라서 나는 오늘 쇼핑하러 가겠다 (shall).

첫째 줄, “나는 오늘 쇼핑하러 가야 한다”는 나의 당위 믿음(ought belief)을 표현한다. 그리고 이 추론의 결론인 둘째 줄은 행위를 수행하려는 나의 의도를 표현한다. 첫째 줄은 나의 당위 믿음을 기술하거나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주목하라(즉, 이 문장은 “나는 내가 오늘 쇼핑하러 가야 한다고 믿는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둘째 줄 역시 나의 의도를 기술하거나 보고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실천적 추론은 어떻게 당위 믿음이 의도와 행위로 이끌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실천적 추론이 삼인칭적 관점에서 진행될 수 있는가? 피터가 실천적 추론 ( $\gamma$ )를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가정하고, 내가 피터를 대신해서 이 추론을 진행하고자 한다고 가정해 보자.

( $\delta$ ) 피터는 오늘 쇼핑하러 가야 한다(ought).

따라서 피터는 오늘 쇼핑하러 가겠다(shall) (갈 것이다(will)).

이것은 이상한 추론이다. 형식적으로 타당한(valid) 추론에서 하나의 단칭 용어(singular term)를 그것이 나타나는 곳마다 다른 단칭 용어로 대체하면, 우리는 그 추론이 타당할 것이라 기대한다. ( $\gamma$ )는 타당한 실천적 추론이라고 논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를 “피터”로 대체한 결과로 나타나는 추론은 실천적 추론이 아니다. 그 추론의 전제인 “피터는 오늘 쇼핑하러 가야 한다”는 더 이상 피터의 당위 믿음의 표현이 아니다. 오직 피터만이 그의 당위 믿음들을 표현할 수 있다. 오히려 그 전제는 피터의 당위 상황에 대한 삼인칭적 보고이다 (그 전제는 피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나의 믿음을 표현한다). 이 전제가 참일 수는 있으나, 피터는 그가 오늘 쇼핑하러 가야 하는지를 알지조차 못할 수도 있다. 또한 결론을 어떻게 정식화해야 하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우리가 “따라서 피터는 오늘 쇼핑하러 갈 것이다(will)”라고 말한다면, 이는 ( $\delta$ )을 명백히 타당하지 않은 추론 — 타당하지 않은 이론적(theoretical) 추론 — 으로 만든다. 반면, “따

라서 피터는 오늘 쇼핑하러 가겠다(shall)”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γ)의 삼인칭 버전은 그것을 실천적 추론이 아닌 다른 어떤 것 — 즉 타당하지 않은 이론적 추론 — 으로 바꾸어 놓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것으로 망쳐 놓는다. 이것이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다른 형식의 실천적 추론을 고려해 보자.

- (ε) 오늘 오후에 비가 올 것이다.  
 우산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나는 비를 맞게 될 것이다.  
 나는 비를 맞는 것을 원치 않는다.  
 따라서 나는 우산을 가지고 가겠다(shall) (가려고 한다(intend to), 가게 될 것이다(is going to)).

이 추론을, “나” 대신 “피터”를 넣어서 얻는 삼인칭 버전과 비교해보자.

- (θ) 오늘 오후에 비가 올 것이다.  
 피터가 우산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그는 비를 맞게 될 것이다.  
 그는 비를 맞는 것을 원치 않는다.  
 따라서 그는 우산을 가지고 가려고 한다(intend to) (가게 될 것이다(is going to)).

삼인칭 버전은 명백히 타당치 않은 추론이다. 실천적 추론자가 (ε)를 추론할 때, 그는 그의 믿음들을 표현하는 전제들을 진술하는 것으로 그 추론을 시작한다. 첫 번째 전제를 진술함에 있어서 그는 오늘 오후 비가 올 것이라는 그의 믿음을 표현하고 있다. 반면, (θ)를 정식화하고 있는 우리가 “오늘 오후 비가 올 것이다”라고 쓸 때, 우리는 피터의 믿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그것을 표현할 수도 없다. 이 전제가 누군가의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일 수밖에 없다. 방관자로서의 우리가 피터에게 일어나는 일을 보고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추론을 구성해볼 수 있다.

- (θ\*) 피터는 오늘 오후에 비가 올 것이라고 믿는다.  
 그는 우산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비를 맞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그는 비를 맞는 것을 원치 않는다.  
 따라서 그는 우산을 가지고 갈 것이다(will) (또는 가려고 한다(intend to)).

이것은 나쁜 추론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물론 실천적 추론은 아니다 — 이것은 피터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예측적인 이론적 추론이다. 그러므로 제삼자는 피터의 실천적 추론을 수행할 수 없다고 결론지어야 한다 — 이는 데카르트 이외의 어떤 사람도 그의 코기토 논변을 진행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나는 여기서 이러한 현상에 대한 설명을 살펴보는 데에 시간을 할애하지 않겠다 — 그리고 내가 이러한 현상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신이 없다. 실천적 추론이 본질적으로 일인칭적이라면, 이유를 생각해 내고 숙고하는 것 역시 일인칭적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행위자들이 결정과 선택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살펴본 종류의 실천적 추론의 구성을 통해서이기 때문이다. 행위자의 관점은 그가 숙고하여 의도와 결정에 도달하는 관점이며, 그의 실천적 추론이 수행되는 관점이다. 우리가 살펴 보았듯이, 이 관점은 본질적으로 일인칭적이며, 행위자의 관점이나 규범적 관점이 일인칭적 — 또는 네이글이 표현했듯 “내적” — 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이다.

규범적 모델을 옹호하는 우리의 시도에 있어서 그 다음 단계는 다음과 같이 논변하는 것이다. 행위에 대한 행위자 자신의 이해, 즉 행위에 대한 행위자의 자기-이해는, 그를 그 행위로 이끈 실천적 추론에 대한 그의 지식이나, 또는 그러한 추론을 그럴듯하게 재구성하는 그의 능력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날에 당신이 큰 우산을 들고 5번가를 걷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고 해보자. (ε)과 같은 하나의 실천적 추론을 기억해 내거나 재구성할 수 있다는 것은

왜 당신이 맑은 날 거추장스러운 우산을 들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당신은 “왜 당신은 이렇게 맑은 날 큰 우산을 들고 가는가?”라며 궁금해 하는 방관자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다. 또, (ε)과 같은 것을 재구성할 수 없다는 것은 왜 당신이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이다 — 실제로 이는 당신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이다.<sup>23)</sup> 당신의 선택과 행위를 정당화하고 근거 짓는 이유에 대한 지식, 다시 말해, 어떤 행위가 당신이 해야 할 적절한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유에 대한 지식은,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를 자기-이해하는 데에 본질적이다. 당신이 그러한 이해를 갖지 못할 때 — 가령, 당신이 도서관에 가고 있는 길에 왜 당신이 거기에 가고 있는지를 잊어버렸고, 도서관에 가는 것에 대한 적절한 실천적 추론을 재구성할 수 없을 때, 이런 상황은 당신을 웬지 모르게 불편한 인식적 난관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순간 당신의 행위를 멈추도록 할 것 같다. 당신이 왜 도서관에 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그곳에 가는 어떠한 이유도 없다. 내가 보기에, 규범적 이유와 추론의 역할은 일인칭적 상황에 관련해서 가장 보기 쉽고, 가장 제대로 인식될 수 있다. 행위에 대한 행위자의 자기-이해는 그가 그 행위를 수행하는 데에 본질적이며, 또한 그 행위에 대한 행위자로서의 그의 지위에 본질적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종류의 자기-이해는 행위자가 정당화하는 이유를 파악하는 것에 있다는 사실이다.

규범적 모델을 옹호하는 마지막 단계는 (곧 보게 되겠지만) 짧지만 단순하지는 않다. 우리는 자기-이해에 대한 이러한 모델을 다른 인간 행위자에게 투사한다.<sup>24)</sup> 그 행위자를 우리와 같은 행위자로 간주하는 것은, 그가 자기-이해를 똑같이 필요로 하며, 그 필요가 우리 자

23) 나는 이 점을 다음 논문에서 논변하였다. “Reasons and the First Person,” *Human Action, Deliberation and Causation*, ed. Jan Bransen and Stefaan E. Cuypers (Dordrecht, Holland: Kluwer Academic Publisher, 1998).

24) 인간이 아닌 행위자를 (그런 것이 존재한다면) 이 논의에서 배제할 필요가 없다.



신의 경우와 같은 방식으로 충족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리고 이것은 왜 그가 그러한 행위를 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 — 우리가 이해하는 것 — 이다. 우리는 여기에 비약이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우리가 우리의 이유에 의해서 우리 자신의 행위를 이해한다는 사실과, 다른 인간 행위자가 그의 이유에 의해 그의 행위를 이해한다는 사실로부터 우리가 그의 이유에 의해 그의 행위를 이해한다는 것이 따라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이러한 이행을 가능케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확신이 없다. 아마도 이 부분에서 감정 이입적 동일화의 아이디어가 들어와야 하는 것 같다. 나 자신을 다른 행위자와 감정 이입적으로 동일시함으로써 나는 그의 이유를 나의 이유로 만들고, 이로 인해 나는 그의 관점으로부터 그의 행위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할 때, 나는 두 가지의 역할을 하게 된다. 즉, 나는 여전히 설명자이지만, 나는 또한 감정이입에 의해서, 내가 설명하고 있는 행위의 주체이기도 하다. 여기까지가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다. 설득력 있게 세부 사항을 채워 넣는 것은 상당한 철학적 작업이 될 것이다. 이는 다음 기회에 다룰 작업이다.

우리는 앞에서 드레이의 규범적 모델에 따라 합리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설명자와 행위자가 실천적 합리성에 대해 대체로 동일한 기준들을 공유해야 한다고 논변했다. 규범성과 행위자의 일인칭적 관점에 의한 합리적 설명에 대한 앞의 설명으로부터 따라 나오는 것은 오직 행위자만이 합리적으로 다른 행위자의 행위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행위를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발생하며, 이것은 우리 자신이 행위자일 때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나는 이러한 결론이 명제 태도 귀속과 상식 심리학(folk psychology)에 대해 광범위한 함축을 갖는다고 믿는다. 그러나 이것 역시 다음 기회에 다룰 주제이다.<sup>25)</sup>

---

25) 이 논문은 준비 중에 있는 더 긴 논문의 축약된 버전이다. 한글 번역을 준 비해 준 이선형에게 감사를 전한다.

## 참고문헌

- Davidson, D., "Actions, Reasons, and Causes," *Essays on Actions and Event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70.
- Davidson, D., *Inquiries into Truth and Interpret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4.
- Dray, W., *Laws and Explanation in History*,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57.
- Hempel, C. G., *Aspects of Scientific Explanation*, New York: The Free Press, 1965.
- Kim, J., "Explanatory Knowledge and Metaphysical Dependence", *Philosophical Issues* 5, 1994.
- Kim, J., "Reasons and the First Person," *Human Action, Deliberation and Causation*, ed. Jan Bransen and Stefaan E. Cuypers, Dordrecht, Holland: Kluwer Academic Publisher, 1998.
- Lewis, D., "Causal Explanation", in *Philosophical Paper II*, New York an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6.
- Nagel, T., *The View from Nowher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6.
- von Wright, G. H., *Explanation and Understanding*,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71.

**ABSTRACT****Understanding Actions**  
Normativity and the Agent's Point of View

Kim, Jae-Gwon

In discussions of agency, we often encounter a distinction between the agent's "subjective" perspective and the external, "objective" perspective. This contrast is commonly taken to parallel the distinction between normative and nonnormative perspectives on decisions and actions. The present paper explores the question how these distinctions bear on each other and on the issue of explaining and understanding actions, our own and those of our fellow humans. Specifically, an attempt will be made to connect the normativity of agency with its subjective character, and explain in what sense the normative perspective is essentially first-personal. This will reveal why the understanding of action, too, is essentially first-personal and irreducible to an objective, impersonal description. One interesting sidelight of our considerations is an explanation of why agents can achieve an understanding of the actions of only those agents with whom they share common norms of rationality — something that can be called "the circle of rational intelligibility".

**Keywords:** Agency, action explanation, rational explanation, subjectivity, normativity, the first-person perspective, practical reasoning

